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로 資源循環經濟社會를!

합성수지와 플라스틱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상의 대발견으로 간주하였다고 한다.

기존의 종이나, 유리, 목재 등의 소재에 비해 가볍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쉬울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저렴하여 플라스틱은 가치 소재분야의 혁명을 가져왔으며, 그 제품의 수만 해도 백만가지가 넘을 정도로 이제 플라스틱이 없는 인류의 삶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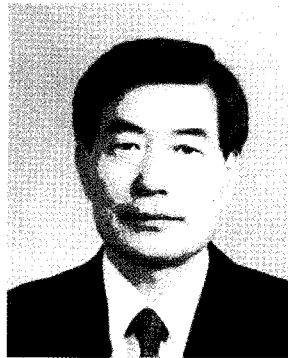
이처럼 플라스틱은 소재로서의 특성이 우수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플라스틱의 이러한 장점과 특성이 오히려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상의 어려움을 유발하여 또 다른 환경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플라스틱 제품이 편리하고 흔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고 버려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늘렸으며, 폐플라스틱은 가치가 떨어지고 부피가 커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생물학적으로는 분해가 어려워 매립이 곤란하고, 소각 시에는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킨다고 의심받는 등 폐기물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또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국내의 플라스틱 재활용율은 발포폴리스티렌, PET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20% 미만으로 종이나 유리, 금속 등 다른 소재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우리사회가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금년에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이라는 장기 정책



김상일 환경부 폐기물 자원국장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라는 새로운 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재활용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소비자, 재활용산업계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폐기된 자원의 재활용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제도다.

EPR제도는 OECD등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독일은

DSD라는 EPR 시스템 도입으로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65%이상 달성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우선 플라스틱 포장재를 EPR 대상품목으로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재활용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현재 합성수지업계와 플라스틱 관련업계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EPR 실시에 대비한 재활용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고형연료하나 유화 등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EPR 제도를 통한 플라스틱의 재활용확대는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앞당길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결국 플라스틱 관련산업에도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발포폴리스티렌 업계를 비롯한 플라스틱 관련업계 전체가 이러한 중장기적인 비전에 기초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 드린다.